한국근대사 이해 돕는 일본관리의 외교비망록

무쓰 무네미쓰 지음「건건록」

역사가 진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까닭은 아마도 지난 역사를 돌이켜 교훈을 얻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간 역사를, 설령 그것이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감추거나 왜곡됨이 없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지나간 역사에서 지금의 역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다.

건건록(범우사)은 1892년 8월에서 1896년까지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있으면서 조약개정을 맡은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가 청일전쟁(1894~1895)을 전후하여 일어난 조선에 대한 청나라와 일본간의 사건을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외교노선을 자신의 경험과 문건을 토대로 하여 회고록 식으로 정리한 일종의 외교 비망록이다.

이 책은 메이지 29년인 1896년 처음 간행되었으나 초기에는 외교상의 기밀을 기록한 것이라 하여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못했다. 그런만큼 건건록은 근대 극동 연구사와 일본 근대 외교사를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동학혁명을 전후로 한 격동기의 한국 근대사를 살펴보는 데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니 어쩌면 단순한 근대사의 외교기록이 아니라 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힘을 가진자에 의해 주도된다는 현실의 자각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교훈서이기도 하다.

동학당의 난(동학 혁명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음)을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이 책은 시작된다. 동학혁명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일본과 청나라의 대립이 첨예화 된다. 무쓰 무네미쓰의 말을 들어보자.

"내 의견을 제시했다. 만일 청국이 어떤 名義를 대서라도 조선에 군대를 출병할 때에는 우리나라도 그들의 군대에 상응하는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예측할 수 없는 반란에 대비하여야 하며 일·청 양국이 조선에 대한 권력의 평형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각료들 모두가 나의 이 의견에 찬동하였으므로"

이말은 곧 향후 건건록을 이루는 모든 일본 제국주의 외교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건록을 읽으면서 이것은 1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는 착각에 자주 빠져들었다. 그 느낌을 대변하는 듯한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일본의 나카쓰카 아키라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의 말도 귀담아 둘 필요가 있다.

"'무쓰 외교'는 100년전에 일본이 사용했던 외교라고만 보아서는 안된다. 지금 일본의 외무성 구내에는 역대의 외무대신 중에서도 무쓰의 동상만이 서 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현대의 일본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으로,「건건록」이 현재의 일본 외교에서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교과서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들 한다. 그것이 형태상의 닮은꼴을 말하는게 아니라 역사의 근본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을 것이다. 요즘 "일본이 없다느니, 있다느니" 말이 많고 '미국을 알자'는 내용의 책들이 나와 많이 읽히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지난 역사를 알아보는 것 보다 더 큰 산 교훈이 있을까. 동학 혁명 100주년을 맞아 읽게 되는 건건록은 외교의 겉과 속을 이해함과 동시에 어느 시대이건 힘을 가진 나라가 외교를 주도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게 했다.

蹇蹇錄의 蹇자는 "괴로와하다" "충직하다"는 뜻이 있다. 무쓰 무네미쓰가 어떤 뜻으로 蹇자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책의 내용을 미루어 "충직하고 충직한 기록"이란 뜻으로 쓰인 듯 하다. 삼국간섭이 시작될 무렵, 독일의 외무대신이 아오키 공사에게 한 말, "세계는 결코 일본이 희망하는데로 또 일본이 지시하는데 따라 움직이게 되지는 않을 것"을 무쓰 무네미쓰는 간과하지 않았다. "당시 외국정부 및 각국 국민들의 눈에 비쳐진 일본 국민에 대한 인상은 조금도 검양됨이 없고 독자적으로 어떤 희망도 어떤 명령도 수행할 수 있다는 교만함의 기운이 널리 팽배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음에는 틀림없는 듯 했다.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이 허망에 들뜨게 되었던 주요원인은 고래부터 잠재해온 우리 국민 특유의 애국심을 발동시킨 때문이었다. 정부는 처음부터 이것을 진작 고취시켜 왔으며, 이것을 조금도 약화시키거나 배제시킬 필요는 없었다. 그렇지만 애국심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위대하게 비쳐졌을지는 모르나, 실제로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조잡하여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주의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왕왕 곤욕을 받아야만 할 뿐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지 않아 아이러니하게도 독일과 함께 결국 일본제국주의는 2차 대전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건건록은 거시적인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김문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1813호

양희석 지음「역사를 무서워하라」

서구라파를 장악해온 뉴톤적 기계모델은 거대체계로서의 큰 담론으로부터 작은 담론으로서의 생활적인 생명의 움직임과 생태의 질서를 포착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보여진다.

네티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7-27 SM빌딩 502호
전화 : 515-9190, 512-9636 팩스 : 517-8436

천상과 지옥의 비밀을 동시에 밝혀주는 금지된 계시록!!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감독
데이비드 린치 전격 영화화!!

세븐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던,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다.
— 뉴욕 타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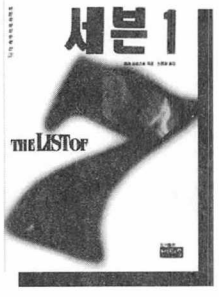
한숨도 돌릴 수 없는 위기의 연속!!
「세븐」이 가진 18세기 유럽문화의 재 해석. 작가 마크 프로스트의 모든 힘에 대한 경계 논리.
그것은 성경의 계시록을 빌려 현대인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 국민일보 편집부장 장재진

신과 악마의 싸움은 오랫동안 모든 작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하지만「세븐」처럼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치밀하게 쓰여진 작품은 극히 드물었다.
— 출판 저널 기자, 시인 김중식

「트윈 픽스」의 작가
마크 프로스트 원작

「세븐」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최고의 축복이었다.
나는 이 소설을 통하여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세븐은 화제를 불러 모았던「셜록 홈즈」와「인디아나 존스」그리고「양들의 침묵」을 결합한 훌륭한 소설이다.



신국판 / 전 2 권
각권 값 6,000 원

도처에 감동적인 스릴이 넘치고 숨가쁘게 책장이 넘어간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반전과 소름이 오싹 끼칠듯한 멋진 표현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세븐을 손에 집어든 여러분은 좀처럼 책을 놓을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맞게 될 것이다.

세븐

이러한 조짐에 친숙한 책이 한권 출판되었다. '공작정치와 저항운동' '역사를 무서워하라' '자주독립과 세계평화' 등 3부 20장으로 구성된 「역사는 무서워하라」(자유문고)는 저자의 독특한 사회철학의 역사관을 보여준다.

또 이만한 중량의 책을 기술하려면 역사해석의 이념적 도식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저자는 자기의 먹거리를 해결하면서 진솔하게 살아가는 일꾼들의 "삶"을 관념이 아닌 "생활적 상대주의 사회철학"으로 그려가고 있다.

저자가 젊은 시절부터 논리적 정직으로 견지해오고 있는 "정치재패가 모든 삶을 왜곡시킨다"는 사상이 저변에 흐르고 있는 셈이다. 우리 역사가 통치권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마을 유지였던 선비들이 사람덩어리를 이루며 일구어온 역사임을 사례를 분석해 하나의 철학으로까지 추동해가고 있다.

저자는 또 하나의 역사 관념을 암암리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자기의 주장을 진리라고 고집하지도 않는다.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술술 풀어낸, 구수한 이야기식의 역사서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이 근대교육을 받고 또 한편으론 근대 이성주의의 한계를 직시하는 우리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인류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웍(Framework)을 재구성해 제도적으로 구현해 보려는 시도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 연결고리를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말이다. 물론 내 공부가 짧은 것을 먼저 자책하지만 이 책의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어쨌든 하나의 사관이 다른 모든 주변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체와 모든 삶이 다 자기의 핵을 일으켜 세우는 탈중심적, 다중심적인 시대로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이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방향이 아닌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제도(엄밀하게 말하면 단순히 分权的 성격이 강한)의 허실을 유추해 낼 수 있어야 하겠다.

박종목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4-5

최현규 지음 「모스」

책읽기의 진지함은 이제 과거의 독서법인 듯하다. 이제는 읽고, 곧 잊는 독서가 미덕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는 독자와 저자간의 간극 메우기라는 교묘한 말잔치가 한 면을 차지하면서 독서계를 우롱하고 있고, 그 맞은 편에는 하늘의 별처럼 자리잡고 있던 신화의 세계가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 밤이면 지상을 비추는, 그 환락성이 자리잡고 있다. 어느 쪽을 기웃거려도 이제 이성은 보이지 않는다.

소설 「모스」(문화산책)가 제시하고 있는 바도 지금의 독서계와 짝을 맞춘다면, 바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스」가 그리 문학적인 책은 아닌 것 같다. 추리소설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공상소설이라고 해야 할지 그 정확한 용어를 찾지 못하겠으나, 이 책이 갖는 장점은 '적어도 재미만은 있다"는 것일게다.

'모스'라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지구 정복의 음모는 대중문화를 수단으로 침투되는데, 대중문화의 또 다른 보통명사는 섹스, 그리고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는 쇼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쇼쇼쇼.

여기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등장인물의 공통점은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차별적이지는 않다. 주인공 지훈이 신문사 연예부 담당기자이고, 우연찮게 '모스'의 배후를 추적하게 되는 문영환 또한 지훈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좀 다른 인물이라면 박성화라는 국회의원일텐데, 그도 매스컴이라는 이 시대의 신에 빌붙어 사는 인물이다. 청문회 때 매스컴을 통해 그의 주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책에서 대중문화를 매우 백안시하고, 더 나아가 '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밀교집단의 제의와 맞물려 여러 사람이 죽고, 마약을 먹고 최면술에 걸린 사람들이 서슴없이 자살을 기도하는 모습들이 서술되는데, 그들이 대부분 대중문화의 곁다리라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대로 드러난다.

물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작가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나 시각을 사회에 밀착하고 본다면, 작가의 시각도 그리 올바르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책의 형식이 추리 혹은 공상소설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작가는 어불성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와 이 소설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마치 책 속의 매니지먼트회사 '수기획'에 여배우 채지연이 있고, 피닉스가 있듯이 이 책 또한 그 회사의 소속인 듯하다. 누가 이 책을 이성적인 글읽기로 마주대할 것인가.

하지만 이와같은 나의 생각은 작가와 상당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래야만 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무척이나 재미있다. 특히 '루앞' '하라스' 등의 이름이 "그야말로 역전되는" 순간은 무릎을 딱 치게 해준다. 저자의 의도에 내가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읽었다.

배남옥

서울시 강동구 고덕2동 258-10

기업과 조직, 상품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야별 사회심리 시리즈

사회심리시리즈 1
군중심리
구스타브르봉 지음/전남석 옮김
신국판/232쪽/값 5,000원
역사를 창조한 것은 군중이었다. 그러나 군중은 지적 행동보다는 감정적 행동에 휘말리게 된다. 「군중심리」는 바로 무엇이 군중으로 하여금 열광케 하고 분노케 하는지를 제시하면서 군중의 특성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다.

사회심리시리즈 2
색채심리
파버 비렌 지음/김화중 옮김
신국판/352쪽/값 7,000원
색채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파버 비렌이 고안한 안전색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영공장에 채택되어 사고율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 준 바 있다. 신비로운 색채심리를 밝혀 놓은 세계적인 명저이다.

사회심리시리즈 3
유행심리
마르크알랭·데캉 지음/
이연숙 옮김
신국판/232쪽/값 6,000원
유행은 어떤 집단의 분비물이며 동시에 그 집단의 이상·모순·가치·무의식의 신경증적 구조를 표현한다. 오늘날 산업화 사회에서의 유행의 사회적 기능과 그 메카니즘을 역사적·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힌 명저이다.

사회심리시리즈 4
조형심리
오미 겐타로 지음/권민 옮김
신국판/362쪽/값 8,000원
미술이 지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실험, 조사하고 검증과 통계처리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편성 있는 결론을 유추해 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심리학적 실험과 통계를 통해 모든 조형예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제시해 준다.

사회심리시리즈 5
작업심리
P.M.피츠, M.I.포스너 지음/
이연숙 옮김
신국판/223쪽/값 4,800원
인간의 노동기능이 습득되는 원리. 그 작업기능의 한계와 능률 향상의 방법을 실험심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 복잡한 작업을 분석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인간의 능력을 예측하고 능률 향상의 지름길을 제시하는 노동심리학.

사회심리시리즈 6
광고심리
오오이시 준이치 지음/
박승호 옮김
신국판/221쪽/값 5,000원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목표와 일치해야 하고 상품의 판매량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광고는 소비자의 심리를 유도해야 한다. 「광고심리」에서는 효과적인 광고비 투입과 광고의 윤리화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신간
사회심리시리즈 7
소비심리
호시노 가츠미 지음/
이연숙 옮김/256쪽/값 8,000원
기호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소비심리 연구의 결정판. 소비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영향을 받아 구매하고 소비하며 즐기게 되는가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 놓은 책으로 일본 산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 수준 높은 내용.

근간
사회심리시리즈 8
간호심리
각분야별 환자들의 특이한 심리 상태를 각분야별 전문가가 진단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심리적 처방을 제시한 종합 간호심리. 간호사, 간병인은 물론 환자의 보호자가 반드시 읽어야할 간호지침서.

東國出版社 전화 715-6544 팩스 715-6543
• 총판 (주)서울출판유통 서울사무소 TEL 578-0061~7 FAX 578-0068~9